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FOUR DEAD QUEENS

가제 : 네 여왕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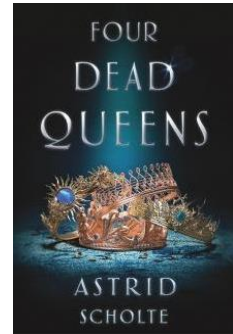
저자 : Astrid Scholte

출판사: G.P. Putnam's Sons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2월 26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체코, 터키 판매 완료 / 러시아 경매 진행 중

\* “살인사건과 큰 혼란, 반전이 놀라움을 선사하는 스릴 만점 영화 같은 이야기” – YA 소설가 새라 글렌 마쉬(Sarah Glenn Marsh)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네 개의 소왕국으로 갈라진 과다라에서 그 네 곳을 각각 다스리던 여왕이 모두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이 잔혹한 살인자의 손에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고, 그 영상이 담긴 디스크는 과다라에서 가장 날쌔고 능수능란한 소매치기로 활약하던 소녀의 손에 들어간다. 누가 이런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과 사기를 일삼던 케랄리는 의도치 않았지만 왕국 전체를 뒤흔들 사건을 알게 된 이상, 여왕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한 비밀을 직접 캐내기로 결심한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숙한 케랄리와 반듯하고 명석한 엘리트 바린, 그리고 케랄리의 오랜 친구이자 멘토 메키엘이 파헤치는 미스터리한 왕국의 비밀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판타지 스릴러 소설이다.

지성을 중시하는 교육과 야망의 왕국 토리아,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디아, 농업과 자연의 왕국 아키아,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기술과 조화를 강조하는 이오니아까지 네 왕국으로 이루어진 과다라가 높은 벽으로 서로 분리된 것은 10년 넘게 이어진 전쟁 때문이었다. 각자가 갖지 못한 기술이나 능력을 이웃 왕국이 보유한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빼앗고 싶은 욕망이 도를 넘어 수천 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고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과다라를 맨 처음 건립한 왕이 결국 물리적인 장벽을 세워 서로를 갈라놓기에 이른 것이다. 그 때부터 네 왕국은 교차점에 위치한 콘코드에서 꼭 필요한 일만 함께 할 뿐, 문화도 상업도 처음부터 같은 왕국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분리됐다. 토리아 출신인 케랄리와 메키엘에게 이곳 콘코드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풍족한 삶을 살았던 메키엘과 가난한 집에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던 케랄리는 경제적으로나 자라온 환경이 영 딴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우정을 키워왔다. 케랄리보다 두 살 많은 메키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지던 아이였지만 그래도 잘 웃고 활발한 친구였는데, 3년 전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6개월 전, 집을 나와 메키엘의 사업을 돕기 시작한 케랄리는 어릴 적 서로 비밀 하나 없이 수다를 떨고 깔깔대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메키엘의 얼굴에 깊이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건히지 않았다. 그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 케랄리도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메키엘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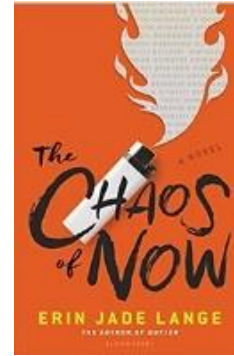
메키엘의 부모님은 고향인 토리아를 덮친 전염병에 희생됐다. 손 쓸 수 없이 번진 이 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 이오니아의 왕국 연구소에서 개발한 약을 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약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삼시간에 확산된 환자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없게 되자 네 왕국의 합의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우선순위가 매겨졌다. 메키엘의 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하면서 뒷거래도 서슴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면 범죄 행위였기에, 치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두 잃고 난 후, 약이 있는데 얻을 수가 없는 잔인한 현실은 메키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환한 미소는 사라졌다. 케랄리의 아버지도 뒤이어 같은 병으로 쓰러지고, 엄마는 치료자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 두었지만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러 기약이 없는 상태였다. 가난하고 병든 집에서 아무 미래도 없이 절망하는 생활에 질려버린 케랄리는 토리아를 떠나 메키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영하는 무역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메키엘이 지목한 사람에게서 지목한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도둑질이었다. 메키엘은 다른 왕국의 문화나 기술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암시장을 개설했다. 토리아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다른 왕국의 물건을 경매에 내놓고 비싼 값으로 파는, 아주 영리한 사업이었다. 케랄리는 이 경매에 내놓을 상품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 '직원'이 된 것이다.

순조롭게 이어지던 케랄리의 '업무'는 메키엘이 디스크를 다음 표적으로 정하면서 뒤틀리기 시작한다. 네 왕국의 접점, 콘코드에서 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오니아 왕국의 사절단 중 한 명을 따라가 그가 가진 디스크를 가져오라는 것이 케랄리에게 주어진 새 임무였는데, 평소 하던 대로 순진한 소녀인 척 가장하여 바린이라는 이름의 그 사절에게서 디스크를 훔치는 것까지는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 문제는 디스크를 훔친 바로 그 날 경매로 판매하던 과정에서 디스크에 네 여왕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랄리는 바린과 다시 만나고, 왕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한 바린의 작전을 돕기로 한다. 서로의 정체를 알지만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파트너가 된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나는 한편, 메키엘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네 왕국을 구하기 위한 케랄리와 바린의 노력은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유머러스한 요소와 로맨스, 스펀스가 적절히 조합된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아스트리드 솔티(Astrid Scholte)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영화·미디어·연극과 디지털 미디어를 공부하고 10년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틴틴의 모험>, <해피 피트 2> 등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제작에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제목 : THE CHAOS OF NOW  
가제 : 혼돈의 학교  
저자 : Erin Lange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18년 10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영국, 독일 판매 완료**

- \*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담긴 이야기. 단순히 답을 제시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한다. 적시에 발표된 인상적이고 강렬한 소설” - 「커커스 리뷰」
- \* “폭력을 가한 자, 그리고 방관자에게 폭력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점을 둬으로써 집단 괴롭힘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린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정말 운이 없다, 생각하며 눈물만 흘려야 할까? 정의가 어떻게든 구현될 수 있도록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 법적 다툼을 시작해야 할까? 그럴 만한 경제적, 심적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직접 되갚기로 결심한다면?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죄와 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기자 출신으로 실제 일어난 범죄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해온 작가는 이 소설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미성숙한 아이들이 벌인 양갈음이 야기한 또 다른 피해를 현실적으로 그린다. TV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즘 청소년들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여 해킹 문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을 중심에 놓고 발언의 자유와 보복의 ‘적정성’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쉽사리 답을 내놓기보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 강조한, 인상적인 성장 소설이다.

조던 비숍이라는 남학생이 학교 식당에서 분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만우절이라 누가 튀는 행동을 해도 장난이겠거니, 여기고 대충 지나갔고 조던이 큰 통을 들고 식당에 유유히 들어가 몸에 그 통에 든 무언가를 팔팔 쏟아부을 때만 해도 다들 그가 장난을 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액체는 석유였고, 그 사실을 누군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조던은 직접 성냥을 그어 자기 몸에 갖다 댔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에 모두가 경악하는 사이 불길을 급속히 조던을 집어 삼켰다. 같은 학년이던 엘리는 다행히 식당 꼬트머리에 서 있었던 덕에 별걸게 달아오른 불길만 보았지만, 조던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뜨거운 열기가 조금 전까지 멀쩡히 걸어갔던 조던의 몸을 태우고 집어 삼키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말았다. 경찰과 학교이 서둘러 조사를 벌인 결과, 조던은 오랫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자신이 별 이유도 없이 웃음거리가 된 상황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 개월 후, 시커먼 자국이 남아 있던 바닥과 벽은 모두 말끔히 새 단장을 하고 학교 곳곳에 ‘학교 폭력 금지’ 같은 경고문이 나붙었다. 그런데 조던이 분신 자살을 시도한 바로 그 날로부터 딱 1년이 지난 뒤, 엘리에게 누군가 암호를 보낸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숫자 0과 1이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컴퓨터 코딩에 심취해 제법 뛰어난 해킹 실력을 키운 엘리는 그것이 암호화된 메시지임을 단번에 알아챈다.

엘리에게 암호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사람은 세스와 마우스였다. 두 사람은 엘리에게 얼마 후에 개최되는 해커 대회에 3인 1조로 함께 출전하자고 제안했다. 원래 조던이 이들과 한 팀이었지만 1년 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난 만큼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승만 하면 엄청난 상금도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자를 찾고 있는 유수의 업체들 눈에 떨어질 것이고,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엘리는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었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래 친구들까지 공부 잘하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 졸업장에 왜 집착해야 하는지 늘 의아해하던 엘리는 세스와 마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코딩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엘리의 목표는 그것뿐이었다.

매년 열리는 해킹 대회에서 이번에 주어진 과제는 교내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던의 죽음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괴롭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전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 활동이 크게 강화되면서 생긴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세스와 마우스는 결함을 찾는 대신 아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일종의 제보 창구를 만들었다. ‘조던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사이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계급을 따지는 속물들이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아이들, 그 외 다른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아이들의 행태를 폭로할 수 있었다. 엘리는 얼떨결에 이 사이트의 개설을 돕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엄청난 공분을 사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다. 그제야 엘리는 세스와 마우스가 처음부터 대회 출전이 아닌 조던이 당한 일을 철저히 되갚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엘리는 ‘젓값’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과연 정의 구현인지 잔인한 복수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큰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색다른 시선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진단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에린 랭(Erin Lange)은 TV 뉴스 프로듀서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그와 같은 사건이 십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하며 글을 쓰고 있다. 소설 『Butter』로 2012년 가을 ‘아동도서 판매자 협회’의 ‘뉴 보이스’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YALSA의 청소년 도서 톱 10에도 선정됐다. 『Dead Ends』는 워터스톤스 아동 도서상 결승에 올랐다. 그 밖에도 『Rebel』, 『Bully』, 『Geek』, 『Pariah』 등을 썼다.